

문화 교류의 보폭을 넓히다

주한 리스트 헝가리 문화원

1989년 동구권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나라 헝가리. 과거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 비슷한 크기의 국토, 전통음악에 사용되는 5음계, 뜨거운 교육열, 매운맛을 즐기는 국민들 등 헝가리와 한국은 공통적인 이모저모를 갖고 있다.

이렇듯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우리와 문화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헝가리. 그 문화를 알리기 위해 헝가리 외교부는 2019년 12월, 헝가리 문화의 전진기지가 될 주한 리스트 헝가리 문화원을 출범했다. 개원 후 두드러지는 약진을 선보이고 있는 주한 리스트 헝가리 문화원의 최근 활동을 살펴보자.

글 이세은 사진제공 주한 리스트 헝가리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헝가리 민족학박물관, 더하우스콘서트



문화원 앞에 자리한 프란츠 리스트 미니 조각상

한국에 자리 잡은 문화 전진기지

중아시아 유목민이 뿌리가 된 나라 헝가리는 긴 역사와 다양한 소수민족 등의 영향으로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는 동유럽 문화예술의 중심지이다. 1916년 헝가리 외교부는 터키 이스탄불 지역을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 26개의 헝가리 문화원을 운영하며 다채로운 헝가리 문화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주한 리스트 헝가리 문화원(이하 문화원)은 가장 최근에 설립된 26번째 헝가리문화원으로 2019년 한국-헝가리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서울의 중심지 명동에 문을 열었다. 메드비치 이스트반 문화원장은 “경제, 스포츠, 문화예술 분야 등에서 최근 헝가리는 한국을 전략적인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양국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히 문화예술과 교육 분야 교류에 더욱 매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원한 지 채 3년이 되지 않았지만 문화원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2019년 12월 문화원 개관과 함께 막을 연 <헝가리 영화제>부터 <서울역사박물관 헝가리 국제 교류전>,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더하우스콘서트-줄라이 페스티벌> 등 국내 헝가리 문화 관련 사업에 적극적인 행

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문화원은 작년 말 헝가리 부다페스트 5구역인 리포트바로시와 강남구청의 자매결연 성사에 일조했고,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V4(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이 워진 비셰그라드 4개국 공동체) 외교관들이 참여하는 ‘헝가리 의 장국’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주최한 바 있다. (헝가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V4 의장국을 역임했다.)

한국 클래식 음악계와의 협업

2021년 9월 1일, 주한헝가리문화원의 공식 명칭은 주한 리스트 헝가리 문화원으로 변경됐다. 헝가리 외교부는 일 년 여간 헝가리 문화원의 브랜드 재고 과정을 거쳤고, 그 일환으로 소수의 문화원을 제외하고 전 세계 헝가리문화원의 명칭 앞에 ‘리스트’를



서울 명동에 유네스코 회원국에 자리한 주한 리스트 헝가리 문화원

포함시켜 명명했다. 이는 역사상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는 헝가리 음악가 '프란츠 리스트'를 기리는 의미로, 헝가리 내 리스트가 차지하는 위상의 정도를 나타낸다. 리스트를 비롯해 줄탄 코다이, 벨라 바르토크 등의 헝가리 음악가들은 서양음악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손꼽힌다.

문화원은 한국 클래식 음악계와의 협업도 이어가며 헝가리 음악가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한국리스트협회'는 문화원 설립 전부터 주한헝가리대사관과 오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1999년 프란츠 리스트의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연구하고 그의 음악을 국내에 소개하고자 창단된 한국리스트협회는, 주한헝가리대사관과 2001년부터 인연을 맺으며 <한국리스트페스티벌>, <한국리스트콩쿠르>, <한국-헝가리 교류 음악회> 등을 기획해왔다.

메드비지 원장은 "매년 2월 열리는 한국리스트피아노 콩쿠르는 수상자들의 갈라콘서트로 마무리 되는데, 우승자는 부다페스트의 유서 깊은 리스트 음악원에서 공연 기회가 주어진다. 오는 10월에는 한국리스트협회의 연례 음악회가 예술의전당에서 개최 되는데 올해도 문화원은 이 연주의 중요한 후원자로서 참여한다"고 말했다.

올해 20주년을 맞는 국내 살롱음악회 봄의 주역 '더하우스콘서트(하콘)'은 2020년부터 작곡가 한 명을 깊게 탐구하는 <줄라이 페스티벌>을 매년 7월 선보이고 있다. 올해 7월 열린 <줄라이 페스티벌>의 주제는 '벨라 바르토크'. 바르토크는 헝가리 민속음악을 작품에 녹여낸 헝가리 국민악파 작곡가로, 기존 화성을 벗어난 창의적인 음악 언어를 만들어 낸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한 달 내내 바르토크의 음악만으로 꾸며진 올해 <줄라이 페스티벌>에는 문화원의 손길도 더해졌다. 특히 7월 1일 열린 개막 공연에는 문화원의 손길도 더해졌다. 특히 7월 1일 열린 개막 공연은 바르토크의 오페라 <푸른 수염의 성>의 한국 초연으로, 작은



공간에 지휘자, 성악가, 오케스트라 그리고 관객들이 자리해 역사적인 연주를 만들어 낸 순간이었다. 메드비지 원장은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하콘의 페스티벌 주제가 바르토크였기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었다. 공연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성악가들의 헝가리어 발음 코칭, 그리고 헝가리어로 된 노래들을 번역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하콘과의 협력은 더없이 좋은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는 18-19세기 헝가리 민속음악을 연구하고 연주하는 밴드인 '홍거리쿠스'가 내한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헝가리 민속음악과 전통악기를 소개했다. 특히 투어 중에는 '아리랑'도 연주되어 내한 공연에 의미를 더했다. 홍거리쿠스의 리더인 바이올리니스트 엔드라시 야노시는 "한국과 헝가리의 음악적 뿌리에 상당한 유사성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메드비지 원장은 "홍거리쿠스 연주는 한국-헝가리 친선협회와 함께 주관한 'Budapest Meets Seoul' 공연으로, 4일 동안 서울을 비롯한 4개 도시에서 7회의 공연을 가졌다"며 "특히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국악 공연팀과의 무대가 하이라이트였다. 헝가리와 한국 음악의 조화를 선보인 이 자리를 통해 다 함께 즐기는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또한 8월과 11월에는 작곡가이자 튜비스트인 롤랜드 센트팔리의 내한이 예정되어 있다. 센트팔리는 제주국제관악제의 심사위원으로 여러 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에 방한해 한국에서 펼칠 수 있는 음악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문화원과 구상할 계획이다.

역사 연계 전시사업

메드비지 원장은 개관 후 가장 성공적인 전시 중 하나로 2020년 열린 <보조끼 데조 사진전>을 꼽았다. 서울역사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부산근대관 등에서 진행된 본 전시에는 수만 명의 관람



객이 다녀갔다. 보조끼 데조는 1908년 한국을 방문해 당시 대한제국 국민들의 삶을 사진에 담아낸 헝가리의 군의관이다. 그는 제물포(인천)·서울·거문도·부산을 차례로 방문해 당시 도시들의 모습을 사진과 글로 기록했다.

메드비지 원장은 "일방적인 헝가리 문화 소개는 지양해야 하기에 한국의 여러 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일회성의 행사가 아닌 정부 부처, 미술관, 박물관, 음악단체 등과 협력해 한국인들의 '일상'과 '역사', '문화'와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화원은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과 함께 국제 교류전 <나의 하루 이야기-헝가리에서 온 사진>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전시는 키워드는 '어린이'로, 2022년 대한민국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획된 사업이다. 전시는 1936년과 2021년 헝가리 어린이의 일상을 엿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약 70km 떨어진 작은 마을인 볼독(Boldog)에 사는 두 소녀의 사진은 지난 80여 년 동안 헝가리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여 준다. 또한 80여 년간 변하지 않고 이어오는 헝가리 전통 놀이 '파프리카' 게임 사진은 향수를 더한다.

초등학교 졸업 후 여학생들은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던 1930년대 헝가리. 그 후 80여년이 지난 현재, 과거와는 달리 모든 어린이들은 성별, 출신과 관계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메드비지 원장은 "헝가리 아이들의 어제와 오늘을 담고 있는 본 전시를 통해 과거 가난한 대한민국에서 자랐던 당시 어린이의 삶과 2022년 현재 대한민국 어린이의 삶 또한 반추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1872년 개관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학 전문 박물관인 '헝가리 민족학박물관'도 본 전시에 힘을 보탰다. 메드비지 원장은 "이번 전시는 민족학박물관 소장 자료를 서울에서 처음 선보이는 자리로, 두 박물관의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는 것 역시 문화원의 중요한 목표"라고 전했다.

이해 앞서 문화원은 지난 5월 김포시와 협력하여 제5회 김포 국제청소년영화제 일환으로 열린 <헝가리 문화의 날>을 주최했다. 이날 헝가리 코미디 뮤지컬 영화인 <부다페스트 로큰롤> 상영을 통해 1960년대 헝가리의 시대상을 한국 관람객들과 나누었다. 또한 문화원은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매년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각국의 문화원과 대사관으로 초청하는 '오픈하우스 프로그램'과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EU Goes to School'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한국 청소년들에게 헝가리 문화·언어·역사·사회적 가치 등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 문화교류에 한 발짝 더

문화원은 앞으로도 한국과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추진, 협력할 것을 예고했다. 오는 11월과 12월, 문화원 대표 행사인 <헝가리 영화제>가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헝가리에서 추앙받는 시인 '산도르 페테피'의 탄생 200주년을 축하하는 전시를 올해 하반기와 내년중에 기획하고 있다. 또한 헝가리의 세계적인 신진 사진작가 플로라 보르시의 사진전을 한국의 사비나 미술관과 협력하여 11월 선보일 예정이며, 1960년대~1980년대 헝가리 현대 추상미술을 선보이는 전시 <Folded-Unfolded>가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성곡 미술관에서 열린다.

메드비지 원장은 "헝가리는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부문에서 1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창의성 있는 헝가리 문화를 한국에 적극적으로 알리며 한국문화와 어우러질 수 있는 사업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또한 "헝가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다양한 와인과 헝가리 대표 국민음식인 구야시, 그리고 급속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헝가리의 새로운 스포츠 '테크볼' 등 친숙한 콘텐츠로도 한국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고 밝혔다. ●